



제14대 회장 이임식 및 제15대 회장 취임식 성료!

- 제15대 집행부의 담대한 출발 알려 -



지난 3월 20일(수)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제14대 회장 이임식 및 제15대 회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국회의원, 정부기관, 농업계·축산업계·낙농업계의 원로, 단체장, 지도자 300여 명이 협회 제14대 회장 이임식 및 제15대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제14대 회장 이임식에서는 2004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난 9년의 세월동안



이승호 전임회장이 손정렬 신임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임사를 전하는 제14대 이승호 회장



취임사를 전하는 제15대 손정렬 회장

안 낙농육우협회를 이끌었던 이승호 회장의 노고를 위로했다.

손정렬 신임회장의 공로패 증정, 협회직원 일동의 기념패 증정에 이어, 홍문표 국회의원, 농축산연합회, 농협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17개 단체에서 '낙농육우산업 발전,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승호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어, 이승호 회장 헌정 영상 '낙농육우에 바친 고뇌와 열정의 여정'이 방영되었으며, 지난 9년간 세 번의 원유가현실화와 총 45일간의 단식투쟁, 농축산단체 투쟁 활동이 화면으로 이어지자 장내 분위기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임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이승호 회장은 '부족한 제가 협회를 잘 이끌 수 있게 도와 주신 전국 농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신임 손정렬 회장과 협회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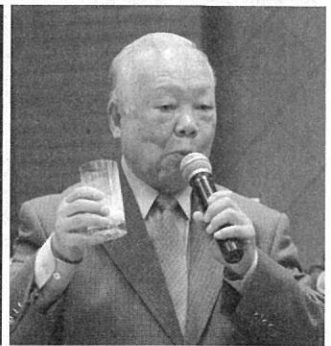
제15대 회장 취임식에서는 새로이 협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손정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승호 회장이 손정렬 회장에게 협회깃발을 전수하면서 낙농육우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신임 손정렬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승호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낙농육우산업의 위기를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헤쳐나가겠다' 며 강한 어조로 각오를 밝혔다.



축사하는 홍문표 국회의원



건배사 하는 협회 김남용 고문

홍문표 국회의원, 김준봉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명연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서규용 전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제14대 이승호 회장에게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위로' 를, 제15대 손정렬 회장에게는 '낙농육우산업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바라는 격려' 를 전했다.

축하 떡케이크 자르기에 이어 우유건배 순서에서는 지재선 고문, 강성원 고문, 김남용 고문이 '낙농육우협회의 전통적인 힘은 전국 농가의 화합과 단결력' 에 있다며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기원' 하는 건배사를 하였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제14대 회장 이임식 및 제15대 회장 취임식이 성대한 분위기 속에 종료되었다. ☺



이승호 전임회장 · 손정렬 신임회장을 비롯, 참석한 내빈들의 축하 떡케이크 자르기